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한국문화콘텐츠, 글로벌디자인경영 /미국에서 마케팅 학과 수료	이름	정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Pennsylvania Shippensburg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021.08~2022.05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Pennsylvania의 Harrisburg라는 곳 중에서도 Shippensburg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부지는 순천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큼니다. 오르막길 없이 평지가 대부분이어서 넓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GYM, 수영장, 서점, 카페, 편의점,</p> <p>학교주변에는 월마트, 식료품점, CVS, Sheetz, 맥도날드, 몇 음식점, 작은 술집 등이 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은 학교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 갈 수 있고 친구와 함께 차로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한인마트(이하 H마트)는 Shippensburg에서 1시간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며 순환버스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p> <p>Harrisburg는 Shippensburg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이며 공항, 기차 등을 이용하려면 학교에서 1시간정도 이동하여 Harrisburg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뉴욕과 워싱턴은 자동차 기준으로 이 곳으로부터 약 4-5시간정도 소요됩니다.</p>
2021-2학기 수업	<p>- Principles of marketing (Dr.Rahman) : 마케팅을 원론적으로 배워보지 못한 저에겐 기초 같은 수업이었습니다. Kotler의 마케팅 원리를 기준으로 배우며 다양한 마케팅 방식과 예시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챕터가 끝날 때 마다 수업 시작 전 쪽지 시험을 보고 금-주말까지 따로 구입해서 사용해야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복습 겸 퀴즈 과제가 있습니다. 주 3회 수업으로 주 마지막 수업일인 금요일은 대부분 Online Day로 지정하고 과제를 할 시간을 주시지만 가끔 수업을 나가는 날도 있으니 교수님이 미리 공지하신 스케줄을 잘 보고 참여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친절하시고 자상하시지만 과제가 주마다 있고 시험도</p>

자주 있으니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 **Art appreciation (Dr.Kelly)** : 다양한 미술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고대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역사와 함께 다루는 수업이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흥미로웠습니다. 중간과제 1-2번과 시험 2번이 있습니다. 쪽지 시험 등 교수님이 학생을 평가할 시간이 보다 적은 편이어서 그런지 꽤 큰 중간과제를 미리 제시해 주십니다. 중간과 기말을 보기 전 두번의 예시 테스트를 볼 수 있으며 그걸 토대로 공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고, 질문이 생기면 시험 전 질문할 수 있습니다.

- **Introduction to Academic writing English (Dr.Rhodes)** : 신입생들이 많이 듣는 글쓰기 수업입니다. 대학교에 와서 에세이와 논문 및 레포트를 쓸 때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배우게 됩니다. 신입생 기준이어서 교수님이 굉장히 자상하시고 친절하십니다. 포인트 점수를 받기위해 Writing Center를 가야 하는데, 글쓰기 과제를 잘 다듬고 싶다면 포인트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주 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 교수님은 글쓰기 학생조수를 따로 두어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조수를 찾아가 조언을 듣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수업의 레포트에 관해서도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 **Classic piano level 1 (Dr.Dade)** : 이 수업은 피아노를 직접 배우는 예체능 수업으로 악보 읽는 법 등 이론적인 것은 물론 피아노를 치며 연주하는 법도 배웁니다. 한명 당 하나의 전자피아노가 주어져 교수님을 따라 연주해봅니다. 수업 이외에 일주일에 3번 피아노실에서 복습을 하거나 기말에 모두 앞에서 연주할 곡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수업 첫날부터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레벨을 가늠해보고 수업시간에도 학생들 레벨에 맞춰 진도를 나가고 연주 곡도 선정해 주십니다. 과제는 배웠던 이론을 복습하는 차원의 프린트물을 채우는 정도이고 1-2에 한 번씩 있습니다. 시험은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체크하고 교과서에서 교수님이 지정하신 곡 중 자기가 원하는 3곡 정도 연주해 봅니다. 이론 시험은 쉬운 편이며 수업에 집중하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기말에는 교과서 이외에 자신이 원했던 곡을 연습하여 무대 위에서 클래스 친구들과 그들이 초대할 친구들에게 연주해 보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른 수업의 과제와 시험에 지쳐 있을 때 피아노를 연습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2-1학기
수업

-Social Media Marketing (Dr.Rahman) : SNS마케팅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팀과제가 있으며 중간고사는 없지만 기말에 팀이 담당한 브랜드의 마케팅 기획과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SNS 마케팅을 실행해보고 결과를 데이터화 한 것을 보며 개선해야 할 점과 효과를 가늠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꽤 비싼데 그만큼 실제 같아서 마케팅 실전 연습 같습니다. 이 외에도 주마다 하는 시뮬레이션과 다른 실제 같은 사례를 주고 해결하는 마케팅 시뮬레이션 과제도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 거의 매 수업마다 쪽지 시험을 봤으며 종종 수업 때 영상을 보여주고 다음 수업 때 의견을 써오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팀 과제는 실제 기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과 기존의 브랜드를 선택해 마케팅을 기획하는 것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면 기업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맞추고 실제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News Editing & Design communication (Dr.Heim) : 신문을 편집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신문을 편집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영어 문법과 단어 등 유의해서 글쓰는 방법부터 어떤 배치가 가독성이 좋은 지 등을 배웠습니다. 신문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원칙 등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질문을 하면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페이퍼 과제가 있었고 주마다 온라인으로 보는 쪽지시험이 있었습니다. 대신 중간, 기말을 따로 보지 않고 기사에 틀린 것을 바로 잡거나 제목 및 캡션을 적어보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Promotion public design (Dr.Heim) : In Design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문, 뉴스레터, 광고, 팸플릿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In Design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다루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 좋았습니다. 1-2주마다 디자인 과제가 주어지고 교수님께서 과제를 통해 피드백을 주셔서 보완점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체 디자인 및 배치 등을 배워 보다 가독성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 역시 중간과 기말 시험이 따로 없고 과제로 대체됩니다. 이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디자인 시간이 주어지므로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교수님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demic Writing (Dr. Smith): Introduction to Academic writing English의 심화수업으로 더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고 글을 써 봅니다.

	<p>그러나 이 글쓰기 수업은 교수님마다 정치성향이 강하거나 자신의 주관에 뚜렷하여 학생들을 유도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하니 강의 리뷰사이트와 주변 친구들에게 교수님 성향을 알아 본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신청했던 Dr. Smith는 그런 분이 아니셔서 다양한 주제로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글쓰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심화된 수업이어서 그런지 영어권식 글의 짜임새가 중요했고 매 과제마다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웠습니다.</p> <p>-3-demotion design (Dr.Dolbin): 저는 3D프로그램을 다루는 수업인 줄 알았으나 다양한 재질의 물체를 가지고 조각 등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철사, 종이, 나무 등 다양한 재질의 특성을 공부하고 3-4주마다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작품 하나를 완성시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날때마다 틈틈이 강의실에서나 집에서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의실이 작업실이기 때문에 주중에 언제나 열려 있지만 주말에는 건물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주중에 시간을 내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수업은 중간과 기말 페이퍼 시험을 보지 않고 평소 제출하는 작품들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평소 수공예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 재미있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글로벌 학생을 담당하시는 Mary는 문의사항에 빠르게 답변해 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궁금한 것이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이메일로 먼저 대화한 후 필요에 따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학교 중앙건물(CUP)의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분에게 캠퍼스 잡을 구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캠퍼스 잡을 위해 필요한 SSN을 발급받을 때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발급 면접을 보는 곳까지 (요청 시) 함께 가 주셨습니다. 또한 전 교환학생들이 기부하고 간 물품들도 그분을 통해 빌릴 수 있습니다.</p> <p>학교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거의 매일 저녁마다 이벤트가 있는 느낌일 정도로 자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학생들만 모여 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주로 글로벌 라운지라고 하는 동아리실에서 이루어지며 소소한 이벤트 위주로, 시험기간에는 준비된 스낵을 먹을 수 있는 등 작지만 자주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할로윈 때는 다같이 호박을 파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p> <p>Writing center는 현지 학생들도 이용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레포트를 쓰거나 에세이를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멘토 역시 교내학생이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p>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므로 직접 센터에 가서 비어 있는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 해야 합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다 있으며 계절 주기도 같습니다. 햇살이 강한 편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했으나 제가 지낼 땐 방학 때 발목까지 내렸던 것이 가장 큰 눈이었습니다.
안전	교내에 교내 경찰이 있고 길마다 긴급 버튼이 있어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가 지낼 당시 소문으로 작은 길목에 묻지마 폭행이 있었다고 했으나 직접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 학교 근처에서 위험했던 적은 없습니다. 여행 시 여행 지역의 치안을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부의 경우 동부보다 위험한 곳이 많으니 유의하여 다니길 바랍니다. 여행시 숙소 근처의 치안과 교통편 이용도 알아보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 Stoneridge Commons 학교 바로 근처, 비즈니스 빌딩기준 5분-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기숙사의 카페테리아 이용과 시설이 물리고 불편할 것 같아 외부 기숙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교환학생 분들도 많이 이용했던 숙소면서 시설과 배치가 다른 곳과 기숙사에 비해 싼 편이라 선택했습니다. 5층까지 있으며 한 층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룸에 2명이 쓰는 배치를 선택했고 각방, 거실, 화장실, 부엌이 있습니다. 1층과 3층에 세탁실이 있고 건조기도 함께 있습니다. 세탁기 한번에 1달러가 필요합니다. 1층에는 작은 GYM과 텔레비전, 자판기가 있는 라운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과 거실 모두 굉장히 어두운 편입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없고 벽에 은은한 조명이 달려있어 책상에 조명을 따로 두는 것이 공부할 때 좋습니다. 부엌에는 전자레인지가 없고 오븐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건식이며 샤워할 때는 1인용 샤워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워부스는 개인적으로 커튼을 구매해야 합니다. 2인용 방 기준 거실과 방 모두 굉장히 넓은 편이여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식기와 조명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쇼핑하기 전 글로벌 학생처에 문의 해 이전 학생들이 두고 간 물품을 빌려 쓸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음은 크게 좋은 편은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아니지만 평소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전체적으로 에어컨과 히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온오프 제어를 중앙제어로 해서 꽃샘추위 시기에 굉장히 추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히터를 많이 틀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O) 기타 ()</p> <p>저는 룸메와 일-이주에 한번 월마트에서 장을 보고 한달에 한번은 멘토 교수님과 함께 H마트에서 장을 보며 대부분 집에서 직접 요리하여 먹었습니다. 가끔 교내 식당과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맛있는 쌀국수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외식비가 꽤 비싸 집에서 먹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어 초반에는 불편했지만 익숙해지면 오븐으로 다양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월마트에서 식자재를 카트 가득 담으면 10만원 내외로 나왔습니다.(2인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현지에서</p> <p>거주했던 외부 기숙사가 학교와 정말 가까워서 강의가 있을 땐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 버스는 교내를 포함하여 마을, Harrisburg로 순환하는 버스 등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특히 방학 혹은 주말에 Harrisburg로 가는 버스 시간대가 불편했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에게 부탁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p> <p>교내에서는 무료로 3시간씩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기분전환으로 교내에서 타기에 좋습니다.</p> <p>뉴욕 및 워싱턴 등 주변 큰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Harrisburg 역에서 기차나 버스를 미리 예매해 타야 합니다. 주말 및 명절 등 이동이 많은 날에는 티켓 값이 올라가니 미리 계획을 세우고 빨리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날에는 티켓 값이 굉장히 비싸니 몇 달전부터 구매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p> <p>-항공 이용</p> <p>다른 지역 혹은 한국 왕복 시 Harrisburg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뉴욕이나 워싱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다양한 항공편과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arrisburg역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넓지 않습니다.</p> <p>United는 되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선택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딜레이와 캔슬이 잦은 편이어서 초행일 때 굳이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면 다른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경유 시 딜레이 되어 문의 후 호텔을 제공받아 호텔에서 머문 뒤 다음날 출발 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한국-미국 한번 이용 시 190만원	며칠 안남기고 예매해서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미리 예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Fees	한학기에 한화 약200만원	학교 유지비 명목으로 당시 한화로 약 200만원씩 한학기에 한 번씩 총 두 번 지불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강의는 추가 Fee가 붙지 않았지만 각 강의마다 Fee가 붙은 것도 있으니 강의 신청 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i>보험료</i>	국내 해외 여행자 보험 신청	
숙소	9달 기준 5760달러 보증금 500달러	1920달러씩 세 번 나눠서 지불
식비	1-2주에 10만원 내외	2명 기준(함께 장 봄)
교통비		때에 따라 상이
책값	중고 및 e-book기준 총 약 15만원	교과서가 비싼 편, 중고 책과 E-BOOK사용 권장
프로그램비	약 19만원	강의에서 사용하는 SNS마케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여행비	총 400만원	겨울방학, 여름방학 각각 약 2주간 총비용
합계	약 2000만원 내외	8개월간 미국에서 사용한 총비용

5. 출국 전 준비사항

-글로벌 빌리지

글로벌 빌리지에 살면서 교환학생에 대한 정보도 얻고 글로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갔을 때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글로벌 빌리지에서 친해진 후 외국에서 만나면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친구를 사귀기 더 쉬워집니다. 해당 학교의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더라도 친구의 친구인 인맥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역시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글로벌 룸메이트와 대화를 나눠보고, 글로벌 빌리지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빌리지에서도 실력이 늘거나 친분을 쌓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면 훗날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영어 공부 및 실력 (토플)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토플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로벌 빌리지에 살면 회화가 많이 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도 있겠지만, 현지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토플이 실제 수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토플 리스닝 파트 흐름이 현지에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은 글쓰기 수업을 제외하고 모두 수업 때 사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저작권 문제로 공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토플을 통해 비슷한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토플은 학교에 따라 각 항목마다 베스트 스코어만 따져서 성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플 1회 시험 비용은 상당히 비싼 편이므로 점수 유지 기한인 2년 안에 원하는 성적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상 현지에 가서 영어실력을 일취월장하게 느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과제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일정에 밀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영어를 많이 공부해 가고, 글쓰기 및 발표를 위한 스피킹도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

학기마다 순천향대 등록금을 내는 것 이외에 **현지 학교 유지비 명목으로 200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기숙사 및 하우스 리스 비도 꽤 비싸기 때문에 거주할 곳의 비용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공책 값과 강의에서 사용하는 웹 프로그램 등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 저것 고려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용에 대해서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갔습니다. 씨티은행은 미국지점도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없고 외화로 바꾸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종종 한국에서 발급받은 한국 은행 카드들이 현지에서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씨티은행 카드도 똑같이 결제가 안될 때가 있어 특히 월마트에서 장을 볼 때

현금을 준비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불편해서 교내에 있는 은행에서 현지 은행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습니다. 교내 은행 상담사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카드 발급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동아리

교내엔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1학기(8-9월)에 동아리 부원 유치를 위한 동아리 홍보 부스들이 열리므로 취향에 맞게 동아리를 지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아리에 참여하면 다양한 친구들을 보다 쉽게 만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친분이 있는 현지 친구가 없다면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Global Study라는 동아리에 참여해 한학기동안 매달있는 글로벌 데이에 맞춰 부스를 진행하고 작은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실천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과제

대부분 매 수업, 매주마다 과제가 있었고 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강의에 따라 한학기에 2번, 4번, 6번 혹은 매주 시험보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은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해 같은 학과 학생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의를 어렵다고 느껴지면 스터디 그룹을 찾아 과제에 도움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레포트의 경우 글의 흐름을 체크하고 싶다면 Writing Center에 찾아가 보완점을 찾아 멘토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수 및 강의 수강신청 전, 전 학기 수강 학생들의 평가가 보고싶다면 Rate my professor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를 업로드 되어있으니 알아본 뒤 수강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강의 수는 4-5개입니다. 수업을 따라가고 과제와 시험을 수행하려면 4개를 수강하는 것을 학교에서 추천합니다. 따라서 졸업을 위한 학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해 보고 전공 및 복수전공과 얼마나 연계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Campus job 캠퍼스 잡

학생비자는 교외에서 아르바이트 및 직업을 구할 수 없지만, 교내 즉, 캠퍼스 잡은 허용이 됩니다. 저는 2학기(3월-5월)에 Art & Science Dean's office에서 Desk 업무를 맡아 오피스 손님을 맞이하고 전화 받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지원할 때 성적을 적는 부분이 있어 성적이 한차례 나와있는 두번째 학기에 지원했을 때 일을 구하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나오지 않은 1학기에 20여곳에 지원했으나 서류(1차)에서 연락이 안 온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캠퍼스잡 지원은 글로벌 학생 오피스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지원 사이트를 알려주시므로 그 곳에서 적성에 맞는 업무를 찾아 지원하면 됩니다. 또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Number(SSN)과 아동 폭력 및 범죄 전력이 없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 역시 글로벌 학생 오피스와 교내 캠퍼스잡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SSN의 경우 발급받는 곳에서 면접을 봐야합니다. 질문은 어렵지 않은 기초적인 것이지만 준비 서류를 잘 챙겨 가야합니다. 저는 서류의 시그니처가 스캔본이라는 이유로 한차례 거절당해 다시 면접시간을 예약하고 찾아가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예약제로 합니다. 운영을 안 하는 날도 있으니 시간과 날짜를 잘 맞춰 가야합니다.)

-여행

여행계획은 미리 짜서 교통편 및 숙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비용들이 시가라고 할 만큼 여행 당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특히 명절 및 공휴일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 자리도 없을 수 있으므로 몇 달전부터 예약하기도 합니다. 숙소를 알아볼 때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지역의 치안도 검색해 보길 바랍니다. 가격이 싼 편일수록 치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내다보면 알게 되겠지만 저녁에 자차가 있지 않으면 돌아다니기 위험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럴땐 택시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니 그 비용도 감안하여 여행계획을 짜길 바랍니다.

명절에는 대부분 가족들과 지내기 때문에 몇몇 거리의 상점들이 많이 열리지 않고 거리도 한산하여 명절 당일 날 여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도심에 따라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워싱턴에 머물렀었는데, 미리 예약해둔 식당 이외에는 대부분 상점이 닫혀 있어 가보고 싶었던 가게를 둘러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인스타그램 @itdal20으로 디엠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디엠 연락 시 교환학생 건으로 문의 드린다고 하시면 되도록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학교 기숙사 부근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p>	<p>3-demetion design 첫 강의 과제</p>
	
<p>겨울방학, 워싱턴 여행</p>	<p>겨울, 뉴욕 여행(MET)</p>
	
<p>봄 방학(3월), LA 여행 1</p>	<p>봄 방학(3월), LA 여행 2</p>